

“민심 눈높이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하라”

뉴스초점 - 여야 선대위 쇄신 대결

민주, 공동선대위 해체 변화·혁신 국힘, 김종인 중심으로 '3인 체제'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선대위를 꾸려라.” 여야가 대선 초반 판세를 선점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한 선대위 구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대선 후보의 메시지와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초반 판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분열에서 벗어나 통합과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관건이다. 여야는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의 대수술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타고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좀처럼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 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현안 대응에 느린 공동 선대위의 실질적인 해체에 들어간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보다 빠르고 강하게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선대위 개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혁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21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대위 쇄신과 관련,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백의종군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모든 선대위 구성에 새로운 재구조,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는 실무자급 위주로 꾸려지는 등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신속하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 등은 현장으로 내려가 ‘표밭 갈기’를 하는 ‘하방’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쇄신의 성과는 외부인사 영입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신한 외부인사 발탁 없이 당내 인사들을 위주로 하는 ‘돌려막기’로는 민심의 반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의 흐름이 정해진 이후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외부인사 영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내외에서는 청년과 전문가 그룹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586 운동권 등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과감하게 선대위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1일 선대위 구성의 큰 틀을 결정했다. 대선 전반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또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발탁됐다.

정치권의 ‘김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은 진영을 떠나들며 선거사령탑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 2016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이어 올해 4월 국민의힘의 재보선 압승을 견인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구태를 답습할 경우 적절한 제도 장치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전 위원장은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대표도 중도층 공략과 함께 취약 지역인 호남 등에서 외연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3인 체제의 선대위가 잘 굴러가느냐, 각기 개성이 강한 위원장들이 이견을 보일 경우, 윤석열 선대위는 원팀 정신이 실종되면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동선대위원장과 본 부장들의 인선이 과제로 꼽힌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원내 선출직인 정진석 국회의장, 김기현 원내대표만 참여시키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호남지역 인사들의 참여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선대위 구성의 큰 틀은 이뤄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선대위 순항과 정권 교체에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외부인사를 영입, 과거와는 달린 모습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에 입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부스터샷 이뤄지면 돌파감염 크게 줄어들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이뤄지면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돼 자가격리가 됐다’는 질문에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다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취약한 분들은 (2차 접종 후) 4개월, 안 그런 분들은 5개월로 보다 빠르게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에 대해 “지금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9%”라며 “접종대상자로 따지면 90%가 높고,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하루 100명씩 확진

학교 등 급속 확산 ‘비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나선 광주와 전남의 방역상황이 심상치 않다. <관련기사 2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기준 역대급 확진자가 발생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목욕탕, 사업장, 요양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환절기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 환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방역 여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38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산구도 중학교 관련 4명, 북구 목욕탕 관련 3명, 북

구도 다른 목욕탕 관련 8명, 북구 어린이집 관련 5명, 서구 유치원 관련 5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4명, 광주 기준 확진자 관련 4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5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최근 한 주(14~20일) 간 하루 평균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70명이 확진됐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심각성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북구 2곳, 광산구 1곳 등 3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모두 258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또 목욕탕 2곳에서 937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121명 등이 전수 검사를 받으면서 판

련 확진자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감염 경로별 누적 확진자는 북구 목욕탕 2곳 관련 각각 15명과 22명, 북구 어린이집 관련 15명, 서구 유치원 관련 16명, 광산구 초등학교 2곳 관련 25명과 10명씩이다.

전남에서는 금요일(19~21일 오후 2시 현재) 사흘간 112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자별로는 지난 19일 66명, 20일 38명, 21일 오후 2시 현재 8명이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4123명이 됐으며, 지난 19일 기록한 66명의 확진자는 전남지역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남에서는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남에서만 17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생만 63명이 확진됐다. 학생 가족과 교직원 등까지 합치면 학교 관련 확진자만 최근 다섯날 전남에서만 100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 돕는 위메프오 광주공공배달앱

음식주문에서 전통시장 장보기까지

소비자

꾸준한 할인혜택 받아 좋고, "착한소비" 해서 부듯하고

쿠폰 할 적립 페이백 전통시장 장보기

위메프오 앱다운로드 QR코드

소상공인

매출은 **高** 올리고 ↑
수수료는 **비** 내려서 ↓

얼씨구나 좋네!!

광주공공배달은 배달 앱 시장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주문배달 서비스입니다. 문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960-2632 | 고객센터 1833-4866 | http://광주공공배달.kr | https://blog.naver.com/gjbaedal